

영화사에 남을 걸작 다시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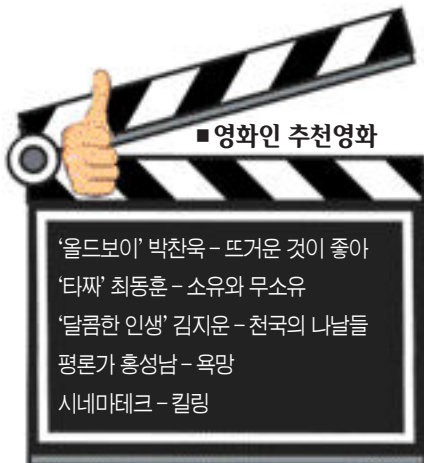
'광주시네마테크 영화로 세상보기' 순회전...박찬욱 감독 등 추천작 상영

마릴린 먼로의 섹시한 자태, 험프리 보가트의 매력적인 얼굴, 리처드 기어의 풋풋한 모습... 영화사 거장들과 배우들의 작품을 대형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시네마테크 영화사 걸작 순회전'이 11월2일~6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네마테크 영화로 세상보기' 등이 마련한 순회전의 선정작은 박찬욱 등 영화 감독들의 추천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3일 오후 6시에는 홍성남(영화평론가)씨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 감독 작품세계에 대해 강연한다.



마릴린 먼로의 섹시한 자태가 돋보인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11월2일~6일 광주극장... '뜨거운 것이 좋아' 등 5편

▲**뜨거운 것이 좋아**
빌리 와일더 감독이 매가폰을 잡고 마릴린 먼로, 토니 커티스가 주연을 맡았다. 술집에서 연주하던 조와 제리는 경탄의 찬연이 나온다. 이 영화를 많이 본다는 신세가 되자 여장을 하고 여성 악단에 합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다.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친절한 금자씨"에서 최민식이 유족들에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를 많이 본다는 기억이 남아 있어 영화 속 대사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

▲**소유와 무소유**
'리오 브라보'의 하워드 후스 감독 작품. 나체에 동조하는 정부와 레지스탕스의 싸움이 한창인 섬에 살고 있는 해리 모건 선장은 배를 빌려주는 일에 만 관심 있을 뿐 전쟁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킨다. 하지만 "성남 있었어요?"라는 말로 시작된 마리아와의 인연으로 모든 것은 달라진다.

▲**타짜** 최동훈 감독=로렌 바콜과 험프리 보가트가 처음 같이 출연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게 만들었던 영화다. 두 사람의 멋진 모습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천국의 나날들**
테렌스 벨리 감독 작품으로 리처드 기어, 샘 세퍼트 주연을 맡았다. 공장장을 살해한 빌은 애인 에비와 도망쳐 시카고 농장에서 일 자리를 얻는다. 병약한 젊은 농장주가 자신이 동생이라고 속인 에비에게 청혼하자 빌은 그가 금방 죽을 거라는 생각에 에비를 농장주와 결혼 시키려 한다.

▲**달콤한 인생** 김지운 감독=리처드 기어의 신인 시절 섹시한 모습과 샘 세퍼트의 지적인 연기의 진가를 볼 수 있다. 대자연의 풍광을 잡아낸 아름다운 화면과 엔니오 모리코네의 선율도 압권이다.

▲**욕망**
미켈란젤로 안토니오 감독 작품. 사진작가 토마스 공원에서 연인처럼 보이는 한 쌍의 사진을 찍

는다. 이를 발견한 여자가 필름을 내놓으라고 하자 토마스는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한다. 인화된 사진을 보면 토마스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영화평론가 홍성남**=감독의 전성기 작품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매력적인 영화다. 당시 청년문화의 감수성도 엿볼 수 있으며 관객들을 '해석의 모험' 속으로 빠지게 한다.

▲**킬링**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 작품이다. 전과자 자니 클레이는 경마장을 털 계획을 세우고 동료를 모은다. 치밀한 준비가 끝나고 계획이 성공했다고 예상한 순간,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네마테크=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강탈 계획에 참여한 인물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문의 062-225-88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콘스탄틴 그리치치(독일) 작 '메이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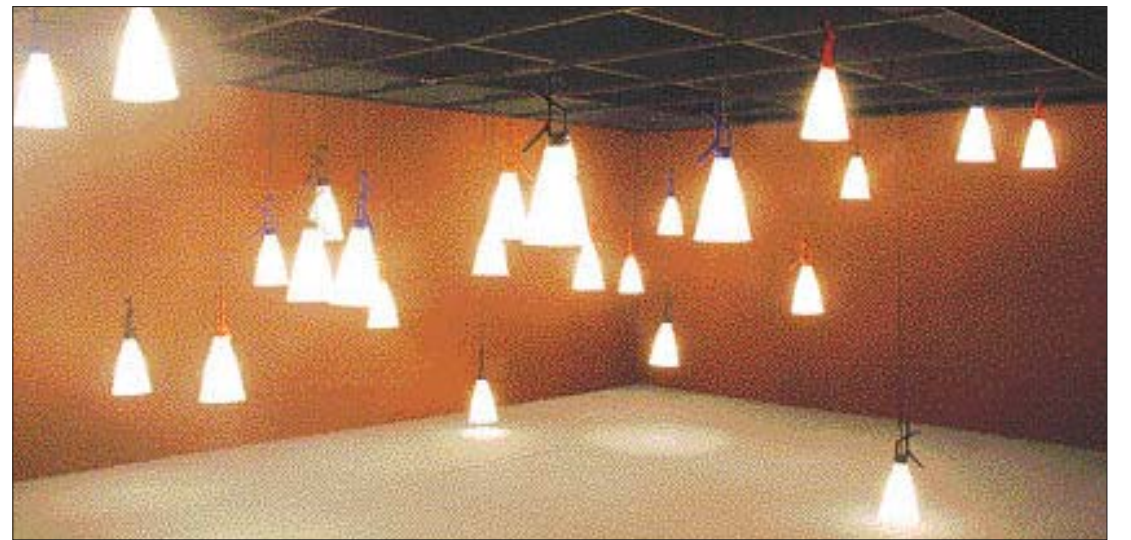
유연함과 실용성의 포착

조명기구는 항상 일정한 곳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 콘스탄틴 그리치치의 대표작. 지난 1962년 이탈리아 디자인 회사 플로스가 상용화한 '메이데이'는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제품.

조명기구에 부착돼 있는 반원형의 손잡이는 고리에 걸 수도 있고 휴대도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메이데이'는 이탈리아의 최고 디자인상인 황금콤파스상 수상작으로 뉴욕 현대미술관에 영구소장돼 있다.

이 작품은 "디자인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지을 수 있는 유연함과 실용성을 포착하는 예술가여야 한다"는 콘스탄틴 그리치치의 작업철학을 구현한 수작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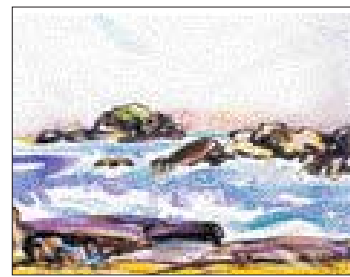
콘스탄틴 그리치치는 독일 뮌헨 출신으로 1999년 런던의 카나리 워프 공장 디자인 공모에 당선됐으며 독일의 '건축과 주거' 매거진에서 선정된 2007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다의 화가' 김기수

11월1~7일 무등갤러리

유독 바다를 즐겨 그려 '바다의 화가'로 불리는 수채화가 김기수씨가 7년만에 개인전을 갖는다.



'동해의 인상'

김씨는 11월1~7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국의 자연을 스케치한 작품과 남도의 자연 등 서정적인 풍광을 담은 작업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그의 캔버스에 펼쳐진 내팔, 체코, 프랑스, 태국 등의 해외 풍경과 우리 산하는 현장 스케치를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작가의 역정을 담고 있다. 대담하고 활달한 필치를 선보이는 '동해의 인상'과 '동해 문암리 해변'은 격정적이고 고고스런 작가의 마음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한·불 수채화 교류전, 광주·가고시마미술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남부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236-25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대 미술동문 한자리

11월1~17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지역 화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목포대 미술학과 출신 미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변재현 작 '도라지꽃'

목포대 미술학과 출신 미술가들의 모임인 '에펠드 목포(회장 변재현)'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초대전을 통해 회원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11월1~17일.

'에펠드 목포'는 지난 1995년 파리 몽마르트르 살브랑에서 창립전을 가진 뒤 이듬해 파리 FIAP Jean Monnet 기획 초대전에 참가했으며, 일본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도 초대전을 갖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

참여자로는 강희주 공옥희 김경수 김계진 김상훈 김선영 김영란 김영양 김호원 박동근 박동선 박석규 박성우 박소빈 박주생 변재현 손준호 윤현호 이매리 이선규 이효국 임수준 장기근 정승호 정운호 조미영 조수경 조영호 최근일 최광호 하철경 등이다. 문의 062-222-357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선율을 입은 작곡가의 영혼

광주필하머닉 '음악의 숲' 공연 11월3일 광주문예회관

곡학과 서양음악의 만남인 '고무신과 하이힐', '행복을 키우는 음악나무' 등 매회 다양한 주제로 음악회를 열어온 광주필하머닉(지휘 김경양·사진)이 11월 3일 오후 3시, 7시30분 두차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음악의 숲'. 작곡가들이

오선지에 자신의 영감을 그린 악보가 어떻게 음악이 되는 지 보여주는 연주회다. 특히 오후 3시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카차투리안의 '칼의 춤' 등이 연주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테



너 김태훈, 소프라노 김선희 등이 작곡가 강창식·김도희·이래근·윤대근·하순봉씨 등이 만든 '가을의 시' '바다에서 먼' 등을 들려준다.

지난 1975년 광주실내악단이라는 순수 민간 단체로 출범한 광주필하머닉 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36회의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문의 011-604-9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M (15세)	최고급관
2관	궁녀 (18세)	
3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4관	행복 (15세)/핀치레이디 (15세)	
5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8세)	
6관	바르게살자 (15세)	
7관	카핑 베토벤 (12세)	
8관	궁녀 (18세)	
9관	바르게살자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이금 부과 *무로잡은 뷔페-티켓만 있으면 잡은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바르게살자 (15세)
2관	레지던트아일랜드 (15세)
3관	M (15세)
4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5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6관	브레이브원 (15세)/행복 (15세)
7관	궁녀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외의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광주시립 영화시영 *예매: www.joyco.com / 1588-7941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카핑베토벤 (12세)/행복 (15세)
2관	핀치레이디 (15세)
3관	러시아워3 (15세)/궁녀 (18세)
4관	궁녀 (18세)
5관	도로로 (15세)
6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7관	바르게살자 (15세)/M (15세)
8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5세)
9관	M (15세)
10관	바르게살자 (15세)

*호남 최대 주차장 *예매실아 상영합니다
1588-7941
*광주해상점 (10시) *정리 상영중
성명연결 범위 -1원 or 2원 -1원

색깔있는 영화선 * www.cinus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궁녀 (18세)
2관	핀치레이디 (15세)
3관	바르게살자 (15세)
4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5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8세)
6관	비커밍제인 (12세)/M (15세)
7관	M (15세)

매일실아 상영합니다
*무로잡은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독자 사무(모바일-캐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1관	러시아워3 (15세)
2관	사랑 (15세)
3관	궁녀 (18세)
4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5관	바르게살자 (15세)
6관	행복 (12세)
7관	카핑베토벤 (12세)/브레이브원 (12세)
8관	비커밍제인 (12세)/브레이브원 (12세)
9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5세)

*리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입장권 구매 시 3시간 무료주차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M (15세)
2관	M (15세)/행복 (15세)
3관	바르게살자 (15세)
4관	궁녀 (18세)
5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8세)
6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티켓만 있으면 잡은이 공짜!
*무로잡은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